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미 소비자들 “올여름 지출 줄인다” 야후/Marist 설문

[미국 금융]

- Bloomberg: 미국의 무역 압박에 단기 국채 강세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유예 마감 다가오면서 증시 하락

[무역 전쟁]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유예 마감일 8월 1일로 연장
- Bloomberg: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 관세 협상 ‘서둘러’
- Bloomberg: 한국, 미국에 관세 협상 연장 요청
- YahooFinance: 트럼프, 반미 정책 보이는 BRICS 국가들에 10% 추가 관세 경고

[오일]

- Bloomberg: 유가 상승...사우디, "OPEC+ 생산량 증가, 시장 흡수 가능"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UPS, 117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기사들에게 명예 퇴직 제안
- CNBC: 패스트 캐주얼 식당, 소비자 이탈 막으려 로열티 프로그램에 의존해
- WSJ: LG 전자, 높은 관세로 영업 이익 절반 감소 전망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YahooFinance: US consumers plan to cut back this summer as tariff worries weigh on spending: Yahoo Finance/Marist Poll
미 소비자들 “올여름 지출 줄인다” 야후/Marist 설문

- 미국인 소비자들은 이번 여름에 지출에 대해 신중하고 지출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관세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소비자 심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Yahoo Finance/Marist Poll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인 80%가 트럼프의 관세가 자신들의 재정 상태에 끼치는 여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5월 28일부터 4일간 2천 명 대상 설문에서 소비자들은 특히 오락,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YahooFinance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Short-Dated Treasuries Outperform as US Tightens Screws on Trade****미국의 무역 압박에 단기 국채 강세**

- 트럼프가 미 관세 유예 마감일인 이번 주 수요일이 다가오면서 주요 무역국에 관세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이번주 초에 단기물 국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트레이더들이 무역 관세의 더욱 명확한 여파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2년물 금리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달러는 다른 주요 통화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현재 관세 유예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트럼프가 글로벌 무역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는 리스크를 투자자들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ocks Fall in Run-Up to Trump's Tariff Deadline**트럼프 관세 유예 마감 다가오면서 증시 하락**

- 미 관세 유예 마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요 무역국들이 무역 협의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은 하락세에 달리는 상승하고 있다.
- 오늘 월요일 오전에 나스닥은 0.5% 이상, 그리고 S&P 500은 0.5%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한편 일론 머스크가 제3의 정당을 만든다고 하자 트럼프가 이를 비판하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는 7% 이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Bloomberg: Trump Sets Aug. 1 Start for Tariffs Ahead of Wednesday Deadline****트럼프, 관세 유예 마감일 8월 1일로 연장**

- 트럼프는 오늘 월요일 관세 협상과 관세 부과 경고를 밝힐 예정이다. 주요 무역 국가들이 오는 7월 9일 관세 유예 마감일을 앞두고 지난 주말에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그런데 연방 재무장관 등 미 관리들은 무역 국가들이 무역 발표 전에 8월 1일까지 유예가 될 것이라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무역 국가들은 사실상 앞으로 3주 정도 협상할 기간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이다.
- 한편 유럽 연합은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주 수요일 마감까지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ations Chase US Trade Deals as Bessent Hints at Extension
일본, 한국 등 주요 국가들 관세 협상 '서둘러'**

- 연방 재무장관은 7월 9일까지 관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들은 협상을 3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트럼프가 목요일부터 무역 파트너들에게 관세 관련 서한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만 연방 재무장관은 이 서한들이 해당 국가들의 최종 관세를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며 8월 1일에 발표될 때까지 협상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일본과 한국, 인도 등의 국가들은 관세 협상을 하거나 협상 연장을 미국에 요청하고 있는데 국가 간에는 마지막 양보를 하거나 맞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outh Korea Seeks US Trade Deadline Extension as Tariffs Loom
한국, 미국에 관세 협상 연장 요청**

- 한국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USTR을 만나 무역 협상을 관세 유예 마감일인 7월 9일 이후에도 계속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여 본부장은 양측 간에 제조 분야의 파트너십과 아울러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철폐나 인하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상호 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에 합의했다.
- 한국 경제는 이미 국내 소비 둔화와 올해 GDP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YahooFinance: Trump threatens extra 10% tariffs over 'anti-American' BRICS policies
트럼프, 반미 정책 보이는 BRICS 국가들에 10% 추가 관세 경고**

- 트럼프는 BRICS 블록의 반미 정책을 수용하는 국가들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 이와 관련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등 이 같은 블록 국가들이 지난 주말에 만나 미 관세와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 비판하자 트럼프는 관세 경고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YahooFinance 기사

[오일]

Bloomberg: Oil Edges Up as Saudis Bet Market Can Absorb OPEC+ Output Hike

유가 상승...사우디, “OPEC+ 생산량 증가, 시장이 흡수 가능”

- OPEC+가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인 하루 54만 8천 배럴의 공급을 늘리기로 한 이후에도 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우디는 시장이 추가 공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자신했다.
-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중동 위기의 중단으로 하락한 유가를 만회했다.
- 이스라엘-이란 갈등 중단 이후, 시장의 초점은 OPEC+의 공급량과 미 무역 정책에 맞춰지고 있다.
- OPEC+은 성명을 통해 “이러한 판단은 안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현재 건전한 시장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UPS Offers Buyouts to Drivers, a First in Its 117-Year History

UPS, 117년 만에 처음으로 운전기사들에게 명예 퇴직 제안

- UPS는 정체된 소포 수량과 상승하는 인건비, 장기간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비용 절감을 모색하며 배달 기사들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있다.
- UPS의 올해 1분기 미국 내 일일 평균 택배 물량이 3.5% 감소해 배송 물량을 줄이고, 4월에 운영 인력 2만 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 UPS는 최근 국제 운송 노조(Teamsters)와 합의에 도달한 이후 주가가 약 45% 하락했는데,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UPS가 노조에 과도하게 양보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 한편, Teamsters 총재 Sean O'Brien은 “UPS는 모욕적인 조건을 내세워 미국 내 좋은 노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WSJ 기사

CNBC: Fast-casual restaurants lean on loyalty programs to offset consumer pullback

패스트 캐주얼 식당, 소비자 이탈 막으려 로열티 프로그램에 의존해

-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체인점들은 로열티 및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 다시 방문하는 고객에게 할인해 주거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이란,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과 일반 레스토랑의 중간 형태의 음식점으로, 치폴레, 스타벅스 등의 회사들이 포함된다.
- Circana 데이터에 따르면, 로열티 프로그램에 가입자는 미가입자보다 방문율이 22% 더 높았고, 해당 브랜드를 비회원보다 두 배 더 자주 이용한다. 이러한 보상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며, 많은 브랜드가 이를 다른 상품으로 확장하고 있다.
- 이 같은 무료 보상은 수익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장기적인 고객 충성도와 정기 구매를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CNBC 기사

WSJ: LG Electronics Expects Operating Profit to Halve Amid Higher U.S. Tariffs**LG 전자, 높은 관세로 영업 이익 절반 감소 전망**

- LG 전자가 미국의 관세 인상과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올해의 분기당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예비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47% 감소한 4억 6천9백만 불(6,391억 원에), 매출은 4.4% 감소한 20조 7,400억 원에 그칠 수 있다. 이는 시장 분석가들의 추정치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 LG 전자는 가전제품과 기업 간 거래가 불리한 상황에도 수익성을 유지했지만,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수요 부진, 액정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상승,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수익성에 부담을 주었다 밝혔다.

WSJ 기사

[보고서]**상반기 홍콩증시 상장신청 역대 최다...미중 갈등에 中기업 몰려**

미중 갈등으로 국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중국 본토 기업들이 미국 대신 홍콩 증시로 몰리면서 올해 상반기 홍콩증시 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홍콩증권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6 월 홍콩거래소에 신규 기업공개(IPO)나 2 차 상장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208 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에 상반기 최다 상장신청이 이뤄졌던 2021 년의 189 개 기업을 넘어선 역대 최다 기록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